

그림으로 읽는 지식의 세계

역사·철학서 등에 그림·사진으로 시각화

빡빡한 활자로 근엄함을 유지해 오던 인문학책에 그림과 사진이 넘쳐난다. 모든 자료가 이미지로 제공되는 추세에 글자만으로는 독자들을 끌어들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인문서의 그림은 대개 글로 된 설명을 보조하는 부차적인 기능을 맡아왔지만, 그림이나 사진이 내용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내용 시각화로 이해 도와

최근에 나온 《옥스포드 영국사》(케네스 O. 모건 엮음, 한울아카데미), 《성경의 전쟁사》(노병천, 줌은문), 《포르노그래피의 발명》(린 헌트 엮음, 책세상)은 사진과 그림이 내용 이해를 돕는 책이다. 《옥스포드 영국사》는 전공자 10명이 영국의 역사를 10부분으로 나눠 쓴 역작인데, 그림·사진 등을 많이 활용한 시원한 편집으로 742면이라는 책두께의 부담을 덜어준다.

성경에 나오는 130여회의 전쟁을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민족의 징계'라는 대원칙으로 설명한 《성경의 전쟁사》 역시 직접 답사한 전쟁현장, 학술적 뒷받침이 된 고고학적 자료 등 성경 속의 전장과 전쟁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300여개의 컬러 화보를 넣었다. 《포르노그래피의 발명》은 포르노그래피가 성적 대상의 선택, 성적 스타일, 성적 집중뿐 아니라 정치적 권위를 비판하고 전복시키는 역할을 한 근대 자유사상가들의 작품이었음을 밝히기 위해 각종 책에서 뽑아낸 '야한' 도판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그림과 사진을 활용한 책이 가장 활발한 출판 분야는 역사학. 그림 섞인 인문학책 출판의 선발적인 '까치'가 그림 섞인 인문학 목록의 첫번째로 《풍속의 역사》(에두아르트 푹스)를 펴낸 것은 단적인 예다. 상하좌우의 여백, 행간까지 유난히 좁아 책을 펴는 것만으로 숨이 막혔던 까치는 그뒤 아예 '그림으로 보는...'의 제목으로 10여종에 달하는 책을 출간했다. "어려운 내용을 시각화해서 이해를 돕고자 시작한 작업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박종만 사장은 자평한다.

역사책에 그림을 활용한 것은 아날학파의

등장이 큰 몫을 했다. 서민들의 생활과 습속에서 사적 의미를 찾아내려는 아날학파의 저작들은 활자로 기록된 관변자료 대신 이름없는 화가들의 풍속화, 당시 책의 삽화, 전단 등을 중요한 사료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 100장면〉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가람기획은 역사전개의 주요 국면을 장면단위로 나누어 한 장면마다 대표적인 도판을 한두개 넣고 설명하는 식의 기획물로 주목을 끌었다. 이광식 사장은 "대하소설처럼 긴 역사책을 읽기엔 요즘의 독자들은 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다"고 기획배경을 밝힌다.

1,250가지의 사진과 그림자료를 활용해 과학사를 정리한 《그림으로 보는 과학문명의 역사》(히라타 유타카, 서해문집)나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세계사》(남궁원·강석규 엮음, 일빛)에 이르면 그림과 글은 입장이 바뀐다. 글이 그림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책 역시 글로 된 책을 줄기로서 모은 그림을 재구성한 것이다.

감각적 감상에 치우칠까 우려도

그림을 활용한 인문서의 새로운 경향은 그림이나 사진이 오히려 인문서의 뼈대로서 텍스트가 되는 경우다. 우리나라의 인문학 환경에서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친숙한 방식이다. 작고한 불문학자 김현씨는 한 번역서에서 프랑스의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설명하는데 현대 회화를 즐겨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때 프랑스에서는 화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철학자를 파트너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

발레리와 드가, 사르트르와 자코메티, 바슐라르와 플로롬, 바르트와 스타인버그, 데리다와 고흐 등이 모두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 철학자·화가들이다. 푸코가 《말과 사물》의 첫머리에 벨라스케스의 '메니나스'를 내세워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설명한 것은 유명하다.

'안그라픽스'가 영국의 아트 앤 이매지네이션을 번역해 내고 있는 〈미술로 본 신비주의〉는 유대교, 기하학 등 종교와 인문학을



그림·사진 등을 활용한 시원한 편집으로 내용을 이끌어가는 인문서들이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

이해하기 위해 그림과 사진을 적극 이용한 번역서이고, 죽음의 각종 상징물을 통해 시대에 따라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이해했는지 밝힌 필립 아리에스의 《죽음 앞에 선 인간》(동문선)도 400여개의 도판을 활용하고 있다. 베르트 모리조의 〈유모〉, 플로라인 슈테트하이머 등의 작품을 통해 사회 속에서 위세를 떨치는 힘과 이미지, 미술 간에 형성되는 관계를 총체적으로 고찰한 《페미니즘 미술사》(린다 노클린, 예경)는 미술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하나의 체계적인 페미니즘 이론서로서 손색이 없다.

아리에스의 저작을 염두에 두었다고 밝힌 《춤추는 죽음》(진중권, 세종서적)과 공간개념을 통해 근대정신을 추적한 《근대 시·공간의 탄생》(이진경, 푸른숲)은 그림을 텍스트로 하는 국내 저작이다. 출판사들은 이 책을 보며 그림과 사진을 텍스트로 하는 인문학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되리라 전망하기도 한다.

특히 《근대 시·공간의 탄생》은 본격적인 성과물이다. 이 책은 우리의 행동과 말, 사고를 제약하고 삶을 제약하는 공장·학교 등 각종 공간을 통해 근대적 시·공간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책머리에 "본문의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도판과 그에 대한 텍스트를 먼저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사진과 그림이 내용 전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그림과 사진에만 기대다 보면 전체를 꿰뚫는 일관된 논지를 찾기 어렵게 된다"며, 이러한 경향이 짜깁기식의 파편화된 지식을 양산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들은 컬러화보를 불거리로 제공하고 내용은 감각적인 감상에 그치고 마는 각종 답사기나 미술감상기가 신간안대대를 점유해가는 것을 그 증거로 든다.

— 이현주 기자

죽음의 상징을 찾아 떠나는 순례

《죽음 앞에 선 인간》·《춤추는 죽음》 외

"내 세상 뜨면 풍장(風葬)시켜 다오/섭섭하지 않게/웃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대로/손목에 달아 놓고/이주 출지는 않게..."

죽음은 때로 이렇게 가볍고 일상적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것은 금기요, 공포 혹은 불결함이기조차하다.

《죽음 앞에 선 인간》 《춤추는 죽음》 《상대